

우리 여기 모여 힘차게 외쳐보자 불러보자  
통일나라 가슴 벅참 지금부터 시작이야  
(가슴 벅찬 통일세상 지금부터 시작이야)

분단으로 수난당한 우리 민족  
차별로 억압받은 이 땅의 여성  
더 이상 갈라지지 말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우리의 힘을 믿으며  
오해와 편견을 깨고 통일과 평화로 나가자

헤어진 사람들 만나고 간헐던 사람들 나와서

2002년 8월 15일 7월 칠석  
견우 직녀 남과 북이 서로 함께 만난다네  
통일 오작교 그 위에서 통일의 문을 열자  
활짝 열어보자

6.15 공동선언 한 길 따라 흔들림 없이  
6월 15일 우리 약속 공동선언 이행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이정표  
깜깜한 밤길에 불밝히네  
철로가 되어주네  
길 잃은 뱃사공 길을 찾고  
달리는 철마의 선로가 되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졌어

여기 모여 기지겅켜고 우리 얘기를 꺼내보자  
여기 모여 쌓아왔던 참아왔던 많은 얘기를 외쳐보자  
여자가 공대는 뭐니 사범대가 적격이지  
입학 때부터 나를 괴롭히더니 통금까지 정말 이게 뭐야  
선배들도 웬지 예쁜 애들만 챙기는 것 같고 못생긴 나는 또 스트레스  
수련회라도 갈라치면 식사당번은 당연하고 술 마신 친구선배로부터 성폭력까지  
시험때 되면

교수님은 어떻게 저릴 수 있을까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그 정도 약과 아예 강간을 하시네  
기대를 강그리 깨버리시네

여기 모여 기지겅켜고 우리 얘기를 꺼내보자  
여기 모여 쌓아왔던 참아왔던 많은 얘기를 꺼내보자

여기 모여 기지겅켜고 우리 얘기를 꺼내보자  
여기 모여 기지겅켜고 참아왔던 말 외쳐보자

꿈에 부풀어 들어선 대학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건  
성폭력 성차별 성역할분담 박물관 성차별의 만연이네  
여자가 공대는 뭐니 사범대가 적격이지  
입학 때부터 나를 괴롭히더니 통금까지 정말 이게 뭐야  
선배들도 웬지 예쁜 애들만 챙기는 것 같고 못생긴 나는 또 스트레스  
수련회라도 갈라치면 식사당번은 당연하고 술 마신 친구선배로부터 성폭력까지  
까라면 까야한다나 그런 게 어딴어 음담패설 끝도 없네  
교수님은 어떻게 저릴 수 있을까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나는 딸이 없어 성폭력 해도 괜찮다나  
졸업 때 되면 향하는 도서관

여기 모여 기지겅켜고 우리 얘기를 꺼내보자  
여기 모여 쌓아왔던 참아왔던 많은 얘기를 꺼내보자

공연 기획안 :

시낭송 후 다 같이 율동하기(시낭송 할 때 인형 등장해서 퍼포먼스 하기)

-할머니 인형3, 학생 인형5, 아이들2, 사람들5

-할머니 힘내세요.(분홍색 플랑에)

-진상규명 사죄 배상,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조그만 피켓 형태로)

1) 시낭송

15

나도 15이 있었지

마냥 꿈꾸고 밝을 그 때

미래를 그리며 희망이 차오를 그 때

그러나

내 나라는 15에게 그런 웃음만을 준 건 아니야

설움과 눈물, 회한과 상처

내 나라를 짓밟은 자들이

나도 가만 두지 않더군

함겨웠어

그 나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아났는지

생각이 안 나, 생각할 수 없지

나 15 그 때를 돌려 받을 거야

지금도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사죄 받고 책임을 물어서 말이야

더 이상 그런 아픔이 반복되면 안 돼

여기 학생들에게 물려줄 순 없지

이렇게 발랄한 젊은이들에게

여보게 젊은이들!

우리와 함께 더 힘내서 해보자구

그래야만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

그게 내 15이고

젊은이들의 미래인 게야

미래,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해.

2) 율동하기

-우리 하나되어

시낭송과 함께 퍼포먼스 하기

7.26 준비하기

반복하지 않아도 될 역사를 반복하는 자 누구인가

전진해야 하는 민중의 파도를 거스르는 자 누구인가